

오노가와 후도타키 폭포

오노가와 후도타키 폭포는 근처 핫칸시미즈(백관청수)라 불리는 샘물을 수원으로 하는 낙차 25m, 하루 6,000 톤의 수량을 자랑하는 대폭포입니다. 헤이안 시대(794~1185년)부터 이 폭포는 부정을 없애는 물로 여겨져 수험도의 수행의 장이었습니다. 수험도란 산악승배에 근거하는 일본 고래의 민간 신앙이며, 신체적인 고행을 견뎌내는 수행을 하는 종교입니다. 수행자는 몸이 잘릴 정도로 차가운 폭포수를 맞으며 불교의 신인 부동명왕을 받드는 기도를 올립니다. 폭포 옆에는 작은 사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오노가와 후도타키 폭포는 칠엽수, 개굴피나무(학명: *Pterocarya rhoifolia*), 물참나무 숲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름에는 폭포가 만드는 차가운 물보라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인기 명소입니다. 겨울에는 스노슈를 착용하고 가이드와 동행하면 폭포가 얼어 푸른색을 띤 얼음 폭포를 보러 갈 수 있습니다.